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마포구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떠나가는 배
수상내역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수상
작가	유영안
공모분야	창작이야기
장르	단편소설
소재	밤섬에서 배를 만들던 아버지 이야기
기획의도	치매에 걸려 기억력을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전에 아버지가 일했던 밤섬으로 모시고 가 기억을 되살리게 함으로써 자식의 도리를 다 하고, 아버지의 삶과 자식의 삶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스토리 구성 (Pl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마포나루에서 거행된 '강상대고'축제를 TV뉴스로 보고 기억이 되살아난다. * 축제 현장을 보여주면 좀 더 자세한 기억이 되살아 날 것으로 믿고 아버지를 밤섬으로 모시고 간다 * 집에서 밤섬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유년을 회상한다. (밤섬에서 배를 만들었던 아버지는 이후 섬이 개발되자 남해안 지초도로 이사를 가 어부가 된다. 태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겪은 아버지는 가까스로 살아나 돌아온다.) *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아버지를 동생집에서 '나'의 아파트로 모시고 온다. 그러나 치매 증세가 나타나 나와 아내는 갈등을 빚는다. * 밤섬 현장과 마포나루 일대를 직접 가 본 아버지는 오늘 하루만큼은 표정이 밝고 기억력이 정확하게 되살아난다. * 곤히 자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나는 출판사를 그만 두고 아버지의 삶을 글로 써보기로 마음먹는다.

떠나가는 배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TV를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며 뭔가를 가리켰다. 나는 신문을 읽다가 무심코 TV화면을 쳐다봤다. 기자가 무슨 행사를 소개하고 있었다. 요즘 지방 자치단체들이 하도 행사를 많이 해 그러고 그런 축제쯤 되겠지, 하고 무관심했는데 뜻밖에 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TV에 옛날 마포나루 풍경이 흑백으로 나오고 있었다. 마포나루로 드나드는 황포 돛 단 배가 유유히 지나가자 아버지가 한걸음 TV 앞으로 다가 앉았다. 나는 긴장했다. 아버지는 두 해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 간혹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래 된 저 풍경이 떠오른 것일까.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어떤 냄새나 색깔에 의해 과거가 되살아나는 것을 의학용어로 ‘정동성 콤플렉스’란 말을 어디서 들은 바 있었다. 아아, 무엇이 아버지의 지워진 기억을 집적거리고 있는 것일까.

카메라가 ‘강상대고 꿈 마포나루에서 열다’라 씌어 있는 커다란 현수막을 클로즈업했다. 기자는 이번 행사가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선포식이 아니라, 마포를 널리 알리고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소개했다. 행사 슬로건에 나온 ‘강상대고江商大賈’란 말이 생소했는데, 행사를 주최한 간부가 자세히 설명했다. 강상대고는 조선후기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그 강상대고의 전통을 이어받아 마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옛 영화를 되살려 일 자리를 창출하고 마포 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행사가 열리고 있는 도화동 복사꽃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풍물단의 공연과 타악 퍼포먼스 ‘아작’의 공연을 구경하고 있었다.

“마, 마포나루다.....”

아버지가 입에 침을 흘리며 환하게 웃었다. 올해 여든 다섯인 아버지는 치매를 앓은 후 침을 자주 흘렸다. 치아도 모두 빠져 말이 잇새로 흘러나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마포나루’란 발음은 아주 또렷했다. 어느 의사도 되살려 놓지 못했던 아버지의 기억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났다. 마침 행사가 사흘 동안 계속된다니 아버지를 현장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다.

“아버지, 저기 가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 귀에 대고 크게 소리치자 아버지가 “잉,잉”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컴퓨터 앞으로 가 검색어에 ‘마포나루’ 하고 쳤다. 수십 가지의 글들과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내가 옛날 마포나루 사진을 찾아 보여주자 아버지의 표정이 더 밝아졌다. 몸에 좋은 한약을 다 드시게 했지만 당신의 낮이 이토록 밝아진 것은 처음이었다.

“밤섬은 안 나오냐?”

다른 뉴스가 나오자 아버지가 애석한 듯 돋보기안경을 벗었다 썼다 반복했다. 밤섬이라.....드디어 아버지는 밤섬까지 기억해 냈다. 치매가 온 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지명들이었다. 나는 검색어에 ‘밤섬’이라 쓰고 엔터를 쳤다. 역시 수십 종의 글과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인터넷은 참으로 편리해서 어떤 정보도 검색어에 치면 나왔다. 물론 그 모든 정보도 사람들이 올리니 컴퓨터 자체의 공은 아니었다. 컴퓨터는 사람들의 추억을 저장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추억을 공유하려는 인간이었다. 나는 밤섬 사진이 실려 있는 곳을 클릭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두 분, 뭐하세요?”

그때 시장에 갔던 아내가 들어왔다. 내가 설명을 하자 아내가 마치 무슨 역적모의라도 하듯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의 마음이란 대충 비슷해서 아내 역시 아버지가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어느 때는 이불에 소변을 저려놓고 벽에 똥칠을 해 아내가 기겁하곤 했다. 물론 그 뒤치다꺼리는

내가 모두 했다. 아내는 구린내 나는 아버지의 방을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시부모도 부모라지만 그녀에게 아버지는 냄새나는 노인에 불과했다. 하긴 며느리는 당신 입장에서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다. 요즘은 이혼율도 높아 아내는 언제 남이 될지 몰랐다. 나도 그런 위기를 몇 번 겪었다. 한 번은 직장 문제로, 한 번은 아버지 문제로.

동생이 모시고 있던 아버지를 내가 모신 후부터 나와 아내 사이는 냉랭해졌다.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표정만 봐도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장손 며느리로서의 도덕적 책무감이나 윤리는 실종된 지 오래였다. 시대가 그랬고 나 역시 ‘4인가족’의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 집에 혼자 남아 있는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동생도 더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내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으나 나는 기어코 아버지를 아파트로 모셨다. 그런데 두 해 전에 갑자기 그 치매 증세가 나타났다.

“당신 누구요?”

그해 봄, 시장에 다녀온 아내에게 아버지가 마치 불청객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물었다. 기겁을 한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낙담했다. 그냥 모시기에도 버거웠는데 드디어 치매 증세가 온 것 같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무너져 얼른 거실로 갔다.

“태수야, 물 좀 떠오너라.”

그 사이 정신이 돌아왔는지 아버지가 냉장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녁에 먹

은 된장찌개가 조금 찼다.

“제가 누구예요?”

“이눔아, 네가 누구라니? 넌 내 아들 정태수지. 클 태, 물 수. 큰 바다에서 노라고 지어주었는데, 배는 타지 않고 이 시멘트 숲에서 살고 있으니 나도 답답하다.”

아버지가 물을 마시더니 내가 배를 타지 않은 것을 나무랐다. 나는 배를 타기 위해 부산 해양고를 졸업했다. 하지만 몇 년 어선을 타다가 포기했다. 원양어선이란 게 워낙 위험한데다 일등 항해사와의 갈등도 겹쳐 그만 육지의 삶을 살기로 했다. 나는 군대에 다녀온 후 재수를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 중소 규모의 출판사인데, 나는 책을 기획하거나 작가를 섭외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그것도 불경기가 겹쳐 언제 잘릴지 몰랐다. 말은 ‘전국민독서시대’라지만 내가 주로 기획하고 출판한 인문학 서적들은 초판에서 대부분 그쳤다. 절반 이상이 인쇄비도 뽑지 못하고 절판됐으니 가히 인문학의 위기였다. 소설도 천 권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갔다. 요즘 독자들은 무거운 내용은 읽지 않으려 했다. 하긴 소설보다 재미있는 게 세상 아닌가. 보험금을 타려고 부모와 배우자를 죽이는 세상에, 무슨 소설을 써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겠는가 싶었다.

“거기 다녀와서 만약 정신이 돌아오면 요양원으로 보낸다는 약속 하세요. 그럼 내가 경비를 델 테니까.”

“당신 정말.....”

아내가 무슨 흥정하듯 해 기분이 언짢았지만 설령 요양원으로 모시더라도 아버지의 기억이 되살아났으면 하고 나는 허락했다. 아니 허락이 아니라 마지못해 응했다. 우리 집안의 공간 열쇠는 언제나 아내가 쥐고 있었다. 보험 회사에 다니는 아내는 수완이 좋아 나보다 월급이 두 배 많았다. 원래 성격도 여장부인데다 돈까지 나보다 많이 버니 내 기가 죽을 수밖에. 태생적으로 누구와 싸우길 싫어하는 나는 웬만하면 긍정하고 살았다. 그게 편했다.

“자, 마포로 갑니다.”

다음 날, 회사에 며칠 휴가원을 낸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마포 쪽으로 차를 몰았다. 마포나루에 간다고 하자 좋아하던 아버지는 그새 잠이 들었다. 허우대 크고 열굴이 맵자하게 생겼던 젊은 날의 아버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차창으로 아버지와 함께 했던 밤섬이 떠올랐다. 한강의 유일한 자연섬인 밤섬에는 옛날에 ‘배 무으던 곳’이 있었다. 즉, 조선소였다. 지금의 여의도는 밤섬의 회생으로 태어났다. 밤섬의 풍부한 모래와 자갈이 여의도로 옮겨졌다. 내가 열 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1968년 폭파되기 전만 해도 밤섬에는 모두 67가구에 육백 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았다. 삼백만 평 남짓한 밤섬은 마포 와우산에서 굽어본 모습이 마치 밤알을 닮았다 하여 생긴 말이라고 어느 기사에 나와 있었다.

밤섬, 지금도 생각이 났다. 은빛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산에는 버드나무 숲이 무성했다. 물은 어찌나 맑은지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밤섬은 이른바 ‘마포팔경’의 하나로 여름이면 나들이 온 사람들로 붐볐다. 그 밤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때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착한 후라고 했다. 나의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의 조상님들이 그곳에 정착해 배를 만들었다. 황포 돛 단 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바로 밤섬에서 생산되어 나온 배가 황

포 돛 단 배였다.

밤섬은 고려 말기에는 귀양지였다가 해방 후 마포구 율도동이 되었다. 섬이 폭과 된 후 아랫밤섬과 윗밤섬으로 나뉘어 아랫밤섬은 마포구, 윗밤섬은 영등포구가 되었다. 그 밤섬이 생태계의 보고로 조명을 받은 것은 지난 1986년, 일반인의 통제가 시작되고 부터였다. 그때부터 한강이 종합 개발되면서 밤섬에는 철새도래지로 인정받아 수많은 식물들이 심어졌다. 최근에 나온 영화 ‘김씨 표류기’가 거기서 촬영되기도 했다.

차창으로 한강이 지나갔다. 어디선가 아버지의 망치 소리가 텅텅 들려왔다. 내가 어렸을 때 밤섬에는 배를 만드는 곳이 몇 곳 있었다. 유년시절, 학교가 파하면 나는 늘 아빠가 일하고 있는 밤섬으로 갔다. 갯벌에 등고선 무늬 같은 잔주름이 끝없이 펼쳐졌다. 나는 갯벌에 난 주름을 보고 고개를 가웃했다.

“아빠, 왜 갯벌에 주름살이 생겨?”

“우리 태수는 궁금한 것도 많네?”

아빠가 툇질을 하다가 허리를 펴며 환하게 웃었다. 야트막한 언덕에 ‘마포 조선소’라 써어 있는 판자가 박혀 있었다. 평지엔 배를 만들 때 쓰일 아람드리 소나무가 베어져 쌓여 있고, 배를 강으로 내리도록 레일을 설치한 곳엔 아빠가 만들고 있는 어선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작업이 끝나면 아빠와 나는 손을 잡고 끝없이 펼쳐진 갯벌을 지나 집으로 갔다.

“저 주름살을 연흔漣痕이라고 한단다. 잔물결 연, 흔적 흔, 그러니까 연흔이란, 강이 물결을 일으킬 때 생겨나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아빠가 판자에 손가락으로 한자를 쓰며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때서야 어렴풋이나마 연흔이 뭔지 알 것 같았다.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나무도 나이가 먹으면 나이테가 생기듯 강물은 저 연흔으로 세월의 흔적을 새기는데도 모르지.”

아빠가 끝없이 펼쳐진 갯벌을 바라보았다. 그때 아빠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인이었다.

“과도가 치면 그냥 생기는 거야?”

내가 묻자 아빠는 신명이 났는지 아예 갯벌로 걸어갔다.

“여길 봐라. 각각 모양도 다르고, 마루의 폭과 길이도 다르지?”

“정말 그러네? 왜 그래?”

“연흔이 생겨나는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지.”

아빠가 설명을 계속했다. 이럴 때 보면 무슨 과학 선생님 같았다.

“바람에 물결이 칠 때마다 모래 바닥에 마루가 생긴단다. 물결은 밀려오다 갯벌에 닿으면 그 힘이 약해져 파가 아래쪽으로 전달된다. 강물의 깊이가 그 파장의 반보다 작을 때, 물의 운동이 바닥 근처에서 강하게 일어나 저 연흔이 생겨나는 것이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하하하. 네가 크면 다시 말해 주마.”

아빠가 조선소로 돌아가 내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다. 엄마가 하얀 옥양목에 짜준 고무마와 막걸리 병이 나왔다. 아빠가 막걸리를 흔들더니 하얀 대접에 붓고 한

잔 거하게 마셨다. 안주로 갓 담군 김치를 젓가락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덩석 집어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오종종 몇 개 놓여 있는 고구마는 내 차지였다. 밥섬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맛은 근동에서 알아주었다.

아빠가 물로 입가심을 한 후 톱질을 시작했다. 아빠가 들고 있는 톱은 그 크기가 큰데다 모양도 무시무시했다. 집에서 작은 통나무를 벨 때 쓰는 톱하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랐다. 앞부분은 넓고 톱날도 컸다. 언젠가 본 상어 이빨 같기도 하고 심해深海에서 잡힌다는 아귀 이빨 같기도 했다. 거기에 찍히면 호랑이도 도망가고도 남았다. 톱은 뒤로 갈수록 넓이가 좁아지면서 톱날도 작았다. 등이 약간 휘어 마치 삼국지에서 조조가 휘두르던 칼처럼 보이기도 했다.

“잘 보라.”

아빠가 통나무에 톱을 대고 살살 굿더니 톱날이 깊숙이 박히자 어깨에 힘을 주었다. 아빠가 힘을 줄 때마다 하얀 톱밥이 튀어나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통나무를 뺐는지 밑에 톱밥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송진 냄새가 연하게 풍겨왔다. 옷통을 벗고 일하는 아빠의 등허리에서 송진 같은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아빠 팔엔 근육이 알토란처럼 꿈틀거리고, 퍼런 힘줄이 지도 속의 등고선 무너처럼 툭툭 불거졌다. 서녘 하늘에 진달래 꽃잎을 짓이겨 놓은 듯한 저녁노을이 물들었다. 석양에 드러난 아빠의 모습은 어린 내가 보아도 거룩했다. 한편으론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아빠가 안쓰럽기도 했다.

“박씨 아저씨는 왜 안 왔어?”

평소 보이던 박씨가 보이지 않고 아빠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자 나는 은근히 부아가 났다.

“그만 둘 모양이다. 이제 이 일도 사양사업이 됐어. 인천에 큰 조선소가 들어서서 배들을 풀빵처럼 구워내니, 누가 비싼 돈 주고 나무로 만든 배를 쓰겠냐? 이제 주문도 거의 끊겼다. 어찌면 이 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아빠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허리를 폈다. 통나무를 베어내자 나이트 단면이 오롯하게 보였다. 나무는 나이를 먹을 때마다 저 나이트가 생긴다고 했다. 갯벌에도 연흔이 있고, 사람의 이마에도 주름살이 생기니 저것들도 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래서일까, 아빠는 톱질 한 번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베어진 통나무에 흠결 하나 없었다.

“자, 이제 삼판 이어붙이기를 해볼까?”

아빠가 톱으로 벤 긴 나무를 배의 중앙 바닥으로 들고 갔다. 예부터 내려온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배는 그 명칭도 다양했다. 배의 제일 앞부분을 덕판 혹은 주전부리라고 했고, 그 밑으로 이어진 앞부분을 이물비우라고 했다. 제일 뒤편은 하판, 그 밑으로 이어진 뒷부분을 고물비우라고 했다. 배의 뒷부분에는 배를 운전하는 킷다리가 설치됐고, 그 킷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창나무가 달려 있었다. 그 외 멩에, 동당장쇠, 장쇠뿔, 투석칸, 개밥통 등 낯선 용어들이 수도룩했다.

언젠가 고려 시대 때 침몰한 어선 한 척을 인양했는데, 신기하게도 아빠가 만든 배의 구조와 거의 닮았다. 장쇠에 구멍 뚫은 것 하며, 삼판 이어붙이기, 피세의 모양이 너무나 흡사했다. 어떻게 칠백 년 전의 배가 지금 아빠가 만든 배하고 비슷할 수 있을까. 아빠는 만약 자신이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면 이순신 장군 밑에서 일했

을 거라며 어깨를 척 폈다. 배 앞에 용머리를 달고 그 용의 입을 통해 대포를 펄펄 쏘는 모습을 연상하자 아빠가 장군으로 보이기도 했다.

“옛날엔 배 만드는 곳을 배 무으던 곳이라 했다.”

“배 무는 곳?”

“배 무는 곳이 아니라, 배 무으던 곳. 그게 바로 조선장, 즉 배를 만드는 장소지. 지금의 조선소야. 서울의 노량진, 밤섬, 서강, 용산 나루에 큰 조선소가 있었다.”

“그러면 뭐해? 아빠에겐 이제 주문이 안 들어온다면서?”

“하긴 그러네. 그래도 기본 기술은 너도 눈여겨 봐.”

아빠는 내가 새참을 들고 이곳으로 오면 툼툼이 배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 주었다. 혹시 나까지 배목수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엄마가 간혹 와 그런 아빠에게 눈총을 주었지만 나는 배 만드는 기술이 재미있었다. 거의 수공手工으로 만들어진 배는 커 봐야 길이가 십오 미터 남짓 되었다. 근해近海에서 어장을 하는 작은 전마선은 길이가 육 미터 정도 되었다. 아빠가 인근 어부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만든 배들은 대부분 중선中船이었다. 먼 바다로 나가 삼치며 고등어를 잡는 배들이었다.

“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황토 돛 단 배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만들어?”

“지금이야 배에 기계를 다니 돛이 필요 없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왜 일찍 돌아가셨어?”

“그게 사연이 길다. 황토 돛 단 배가 팔리지 않자 두 분은 저 남해안으로 이사를 가셨다. 거기서 배를 부리다 그만.....사흘 간 태풍이 불었어. 네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도 병이 나 돌아가셨다.”

“그럼 왜 아빠는 그곳에서 살지 않고 여기서 다시 배를 만들어?”

“글쎄다. 배운 기술이 그거고 또 그게 자식이란다. 남들은 천시해도 부모가 한 일을 자식이 이어받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아빠는 당신이 하는 일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인천에 큰 조선소가 들어선 후 주문이 그쪽으로 몰렸다. 거기에선 특수합성 플라스틱으로 주물한 배가 조립되어 나온다고 했다. 나무로 만든 배에 비해 가볍고 값이 싼데다 주문하면 금방 나오니까 선주先主들이 그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날이 어두워지는구나. 집으로 가자.”

조선소에 어둠이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아빠가 연장을 챙겨 작은 창고에 넣어두고 강물에 손을 씻었다. 아빠의 손바닥에는 톱질 할 때 묻은 송진이 묻어 있었다. 갯벌을 묻혀 강물에 씻자 신기하게도 손바닥이 깨끗해졌다. 밤섬은 민물과 짎물이 만나는 곳이기도 했다.

아빠와 나는 손을 잡고 갯벌을 걸었다. 강물이 고여 있는 작은 갯골에 새우가 툭툭 튀고 붕장어 새끼들이 느리게 움직였다. 갯벌에 나와 놀던 게들이 인기척이 나자 찹싸게 구멍으로 숨어버렸다. 갯벌에 지도를 그리며 놀던 비단고둥들도 제 집으로 기어갔다.

“아빠, 주문 안 오면 조선소 문 닫을 거야?”

아름드리 소나무가 수백 그루 서 있는 해안사구를 지나며 내가 묻자 아빠가 시무룩해졌다. 지난 태풍에 소나무 가지들이 찢어져 밑으로 축 처져 있었다.

“주문이 안 오면 닫아야지.”

“그럼 뭐할 거야?”

“글쎄다.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거기 가서 김양식이나 해볼까 한다.”

아빠가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성냥을 그었다. 팍, 소리와 함께 유황냄새가 풍겨왔다. 성냥불에 담배를 대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아빠의 옆모습이 문득 외로워보였다. 담배 연기가 소나무 가지 사이로 춤을 추며 날아가다 사라졌다. 고개를 돌리자 마을 초입에 엄마가 우두커니 선 채 우릴 바라보았다. 해안가까지 밀려온 파도가 자갈밭에 드러누웠다. 자갈 사이로 빠져나가는 파도 소리가 슬펐다.

“몇 년 있으면 우리 태수가 중학교 가야하는데, 큰일이네.”

아빠가 거푸 담배를 피우며 어둠에 잠긴 갯벌을 바라보았다. 멀리 어화漁火들이 꿈결처럼 떠 있었다.

“아빠, 그 배 다 만들면 아빠가 고기 잡으러 가.”

“고기는 아무나 잡는 줄 아니? 물 날 때 물 들 때, 어디 가서 무슨 그물을 놓아야 무슨 고기가 잡히는지 알아야 고기를 잡지.”

“그것도 기술이 필요해?”

“그럼. 농사든 고기잡이든 경험이 중요해.”

“배우면 되지 뭐.”

“생각해 보마.”

아빠가 담뱃불을 비벼 끄고 집으로 걸어갔다. 엄마가 다가오며 무슨 줄담배를 그렇게 피우느냐고 아빠에게 핀잔을 주었다.

“당신, 나하고 지초도 가서 어장이나 다닐래?”

“여자가 배를 타?”

“어때? 처녀 뱃사공이란 말도 있는데.....”

“하긴 그거라도 해야 우리 태수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지.”

“좋아, 우선 배 다 만들고 성식이 배 좀 타면서 기술을 배워야겠어. 고기 잡는 기술하면 내 친구 성식이니까.”

아빠가 곧장 성식이 아저씨 집으로 걸어갔다. 성식이 아저씨가 부리는 배도 아빠가 만든 것이었다.

“그래도 니 아빠 마음이 아프겠다. 평생 그 일만 했는데...세상이 변하니까 사라지는 직업도 참 많더라.”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누렁이가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보챘다. 지난달에 낳은 새끼들이 까만 눈을 깜박이며 빨리 밥 주라는 듯 재우쳤다.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솔잎을 넣고 국을 끓였다. 부엌 한쪽에 조선소에서 가져온 나무등걸이며 톱밥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화무십일홍이라더니.....”

무쇠술이 앓혀진 아궁이에 톱밥을 던지는 엄마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아빠가 배를 만들어 번 돈이래야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면 몇 푼 남지 않았다. 엄마는 사시사철 무명 적삼에 미장원에도 안 가 머리카락이 다복술처럼 엉켜 있었다. 무쇠술 뚜껑 사이로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성식이 아저씨 집에 다녀온 아빠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지만 엄마는 별로 반가운 기색이 없었다. 그 점은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고기를 잡는 것과 배를 만드는 것은 서로 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일이었다.

“밥이나 먹읍시다.”

엄마가 소반을 들고 마루로 왔다. 아빠는 밥맛이 없는지 젓가락으로 반찬을 헤적이다가 냉수만 들이켰다. 마당 구석에 서 있는 팽나무 사이로 어둠에 잠긴 바다가 보였다.

그해,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마지막으로 만든 배를 강으로 내렸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했다. 평소 같으면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도 지내고 진수식을 성대하게 했을 텐데, 그날 조선소엔 배를 바다로 내릴 인부 몇 명만 왔다. 아빠와 배목수 일을 같이 하다가 ‘노가다’로 생업을 바꾸어버린 박씨 아저씨도 왔다. 간단하게 소주 한 잔 올리고 진수식이 시작됐다. 인부들이 배를 밀자 레일을 타고 배가 강으로 내려갔다. 우리 가족은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멀리 지초도로 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가 있는 지초도로 온 아빠는 마을 주민 한 명과 함께 매일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다. 고기도 제법 잡혀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아침 일찍 먼 바다로 나간 아빠는 바다에 드리워진 그물을 올리고, 빈 시간엔 낚시질을 해 갈치며 삼치를 낚았다. 잡아온 고기는 전량 수협 공판장으로 가 경매에 붙여졌다. 어판장은 경매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어쩌다 만선을 하기라도 하면 아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돼지를 잡아 잔치를 했다. 수협에 적금을 들고 내가 고등학교에 가면 학비로 쓸 교육 보험에도 가입했다. 엄마는 평소에 자주 가지 않던 미장원에도 출입하고 화장품도 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내가 중2가 되었을 때, 지초도 앞 바다에 일기예보에도 없던 바람이 불었다. 추자도 근처로 은갈치 낚시를 하러갔던 아빠 배가 조업을 마치고 지초도로 돌아올 시간이었다. 서서히 바람이 거세지면서 바다에 말총머리 같은 파도가 휘날렸다. 해조음이 음산하게 들려오면서 갈매기들이 낮게 날았다. 추자도 앞 바다에서 지초도까지 오려면 몇 시간 걸렸다. 차라리 추자도 근해에 있었다면 근처 부두로 피하면 됐지만 시간으로 보아 지초도로 돌아오고 있을 게 분명했다. 휴대폰이 없었던 시대, 바다에 나간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점점 어두워지는데 어찌냐.....”

엄마가 부들부들 떨었다.

“올 거야. 반드시.....”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바다에선 불빛 한 점 보이지 않았다. 파도가 선창을 범람해 솟아올랐다. 바다는 점점 포악한 근성을 드러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밀릴 정도로 바람이 거세졌다. 집채만만 파도가 해안가에 와르르 무너졌다. 갯바위를 때리며 솟아오른 물보라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찍 돌아와 선창에 묶여 있던 배들도 두둥실 뗏다가 쭉 가라앉고, 옆구리에 묶어둔 페타이어가 서로 마찰을 하며 킁킁 신음을 토해냈다. 물안개비가 자욱하게 퍼졌다.

“허허, 이게 무슨 일이다냐.....”

어촌계장이 와 금세 조용해질 바다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추자도로 은갈치 낚시를 하러 간 풍어와 청해호가 아직 안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어른들이 모두 선창가로 모여 들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으니, 가족들은 애가 탔다. 나는 소나무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자 바로 앞 바다도 잘 보이지 않았다.

“일단 신고를 해놓았으니까, 기다려 보자.”

그해 같이 지초도로 내려온 성식이 아저씨가 해양 항만청에 신고를 했으나 문제는 시간이라며 안절부절못했다. 숙모가 위장병으로 읍내 병원에 간 바람에 어장을 나가지 않았던 성식이 아저씨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렇게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면글면하더니, 이게 뭐냐. 바다란 게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니다.”

성식이 아저씨가 소나무 밑동을 발로 툭툭 차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소나무에 올라간 나는 슬그머니 내려갔다.

“몸이 날아갈 것 같다. 일단 집으로 가자.”

성식이 아저씨가 내 손을 잡고 이끌었다. 빗물에 젖은 손은 서늘했으나 아빠와 오랜 친분이 있는 탓인지 마음은 따뜻했다. 선창으로 걸어가자 가족들이 울부짖었다. 직접 배를 탄 것은 아니지만 섬사람들에겐 예감이란 게 있었다. 바다의 색깔, 바람이 전해주는 촉감만 느껴도 불행의 전조前兆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저 정도의 바람과 파고면 중선이 아닌 큰 배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마음속으론 기적을 바라지만 한편으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부 가족들의 숙명인지도 몰랐다.

“여긴 위험합니다.”

지서에서 순경들이 나와 뭐라 말했지만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어부들이 느끼고 있을 공포와 절망을 알 리 없었다. 수천 미터 허방으로 떨어지는 그 공포를 누가 알겠는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부들은 가족을 부르며 저 깊은 바다 속으로 잠길 것이다. 그들이 평생 살았던 바다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공포와 절망의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았지만 바다는 뒤채고 끓으며 망나니처럼 춤을 추었다. 해안사구에 방품림으로 심어둔 소나무들이 일제히 몸을 흔들며 온몸으로 그 바람을 견뎠다. 만조의 바다는 마치 섬을 집어 삼킬 듯 길길이 날뛰며 길을 삼키고, 지붕 낮은 집들의 서까래를 무너뜨리고, 선창을 반쯤 목사발로 만든 후에야 스스로 지쳤는지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틀 동안 불어 닥친 태풍이 언제 그랬느냐 듯 시치미를 뚝 떼고 돌아앉았다. 엄마가 혼절했다. 그때 엄마 뱃속에는 동생이 들어 있었다. 위령제가 열리고 씻김굿을 하고 장례식도 치러졌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바다에 있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것이 마치 운명이란 듯...

그런데 기적이 발생했다. 며칠 후, 저만큼 아버지 배가 나타난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인근 섬으로 대피했다가 이제야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풍어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아버지는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갔다. 바다가 무섭다고 했다.

*

“생각난다, 생각 나. 그래, 저 곳에서 내가 만든 배가 강물을 따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지.....”

아버지가 서강대교에 서서 멀리 밤섬을 바라보며 한숨지었다. 비록 노안老眼이었지만 옛 밤섬 풍경이 하나, 둘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섬이 많이 줄었구나.”

“이제 일반인은 저 섬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다 들키면 벌금이 엄청나요. 저곳이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든요.”

“뭘 소린지 모르겠다. 마포 나루로 가자.”

“네, 아버님.”

나는 차를 몰아 마포나루 쪽으로 갔다. ‘강상대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물놀이에 맞춰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마포역 4번 출구를 지나 공덕동 방향으로 직진하고 골목 안으로 우회전하다 한참 달리자 ‘마포나루’란 간판을 단 식당이 나타났다. 부근에 주차를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십 명 앉아 있었다. 메뉴판에 해물파전, 굴전, 감자전 등과 계절 음식으로 콩국수, 냉면 등이 보였다.

“해물파전 드실래요?”

“그러자.”

나는 아주머니에게 해물파전을 시키고 아버지에게 계속 말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때도 여기에 식당이 많았죠?”

“그랬지. 여긴 조선시대부터 수상 교통의 중심지였어. 서해안의 어선들이며 어염 상선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어. 그때 내 아버지가 만든 황포 돛 단 배는 강과 항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지. 새우젓도 많이 나고 참 푸졌더랬어.”

“지금도 마포 새우젓 축제를 해요. 그때 또 모실 게요.”

“네가 오늘 효도하는구나?”

“네? 다, 당연히.....”

아버지의 칭찬이 왜 그리 부끄러웠을까. 나는 해물파전을 먹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당신들은 배를 만들고 어장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건만 자식들은 당신을 부담스러워했다.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만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저도 출판사 그만 두고 글이나 쓸까 해요.”

“그럼 뭐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걸어오신 길이 뭐 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향수가 돈이 되거든요.”

“뭘라 비싼 향수를 뿌려야.”

“네? 향수를 뿌려요?”

말기를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고도로 수준 높은 언어유희를 말한 건지 몰라 나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졌다.

“마포엔 글 쓸 거리가 많아요. 절두산 순교 성지, 도화낭자 전설, 염리동 물장수.....홍대 앞은 어찌고요.”

“그래 한 번 써 보라.”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다. 내가 해양고를 나오고도 배를 타지 않고 출판사에 들어가자 서운해 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조금 풀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아득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21세기에 과연 통할까. 통하든 안 통하든 나는 아버지의 밤섬을 되살려 주고 싶었다.

“기회가 되면 그때 배 만드는 것, 재현할 수 있겠어요?”

“그럼,그럼. 아직도 힘만 있으면 배 한 척 똑딱 만들지.”

아버지가 힘차게 톱질을 하는 시늉을 했다. 오늘 당신은 가는귀도 안 먹고 기억력도 맑았다. 무엇이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려 놓은 것일까. 해물파전을 맛있게 먹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오고, 오늘은 그만 가요.”

“그래, 고마워.”

“이제 안 아프실 거죠?”

“그럼, 그럼.....”

나는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갔다. 잠시나마 추억을 거슬러 올라갔지만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로 오자 다시 가슴이 막막해졌다. 왜 사람들은 옛것 앞에서는 마음이 아늑해지지만 최첨단 앞에서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일까. 요즘 향유되고 있다는 ‘향수 마케팅’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정말 자신 있어요?”

아버지가 잠든 시각, 내가 아내에게 계획을 털어놓자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다. 내 실력을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속으로 반박했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실력을 믿는 게지. 한 치도 안 틀리고 재단해 배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면 충분하다고, 전기톱이 있지만 손수 톱질을 해 판자에 체운을 입히는 그 정성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어 내 결정이 옳은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이들 결혼 경비는 아내가 대겠지.....나는 슬며시 웃으며 서재로 갔다. 그동안 모아 놓은 책이 책장 여섯 개를 가득 채우고 넘쳤다. 저것들 중 내가 기획하고 작가를 섭외하여 만든 책이 몇 권이나 될까. 정작 내 책은 한 권도 없는 서재를 보면서 나는 꿈속의 황포 돛 단 배를 떠올렸다. 거기 내 할아버지가 배의 이물비우에 서서 돛을 올리고 있었다. 바람에 돛이 만삭이 된 여인의 배처럼 부풀어 올랐다. 나는 서재를 뒤져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처럼 곤히 잠든 아버지는 오늘 행복했을 것이다.